

범야 192석... 여당 기록적 참패에 정국 '후폭풍'

민주, 의장·주요 상임위원장 차지
범야·예산 처리 등 국회 주도
국힘, 한동훈 위원장 사퇴
총선 패배 책임 공방 거셀 듯
총리 등 사의... 인적 쇄신 예고

4·10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막을 내리면서 '정권 심판' 목소리가 거세지고, '용산 책임론'도 불거지는 등 정국도 요동칠 전망이다.
또 민주당은 과거 180석을 기록하고도 별 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제21대 국회 경험을 되새기며 내부 입단속에 나섰고, 국민의힘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하는 등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11일 4·10 총선거결과 민주당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원내 과반인 151석을 훌쩍 넘는 의석(175석)을 차지했다. <관련기사 2·3·4면>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토대로 국회의장은 물론 주요 상임위원직을 차지하며 법안·예산 처리 등 의회 권력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동의안 등도 민주당이 키를 쥐게 됐고, 국무총리·국무위원·법관 등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도 가능하다.

범야권이 180석(재적의원 5분의 3)을 확보함으로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등 각종 입법에서도 우위를 점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조만간 차기 지도부 선출 절차에 돌입한다. 당장 5월 원내대표 선거에 이어 8월에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다.

'이재명 지도부'가 총선 대승을 이끌면서 주류 친명(친이재명)계가 옮겨진 헤게모니는 새 지도부 구성 과정에서도 막강한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108석(비례 포함)밖에 확보하지 못한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개헌선(200석)만 가까스로 막아냈을 뿐, 정책·입법 주도권을 범야권에 고스란히 내주게 됐다.

특히 조국혁신당(12석)과 개혁신당(3석), 새로운미래-진보당(각 1석)을 포함해 범야권 의석이 192석에 달하면서 국회에서의 국민의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국민의힘은 2016년 20대 총선, 2020년 21대 총

총선 광주·전남·전북 당선자 얼굴·득표 ▶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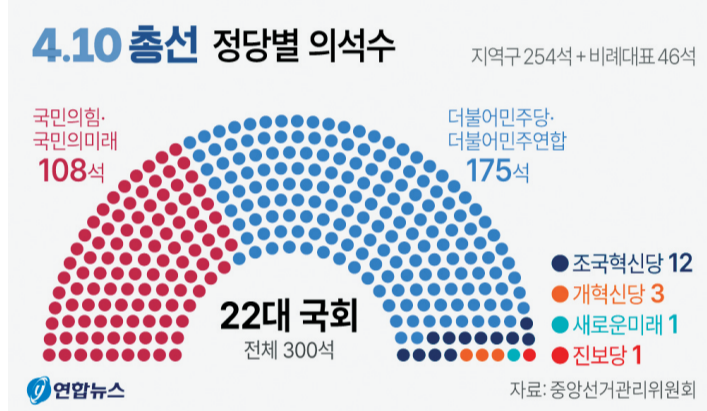
복스 - '세계 속의 위대한 공학자 50인' ▶14·15면

KIA 이병호 감독 "급할수록 돌아가겠다" ▶18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광주지역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8명이 11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선에 이어 세 번 연속으로 총선에서 패했고,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 대통령 임기 내내 소수당에 머무르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총선 패배 책임론 공방과 함께 상당 기간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동훈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은 이날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당분간 윤재옥 원내대표가 당 대표 대행 역할을 맡아 빈자리를 채워나가며 향후 지도체제를 어떻게 꾸려나갈지 등에 대해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의견 수렴을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22대 국회가 정식 출범하고 새 비대위를 꾸려 당 재건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의 화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로 향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이관섭 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용산 고위 참모진도 이날 일괄 사의를 표명, 대대적인 인적 개편도 예고했다.

또 윤 대통령이 오는 5월 10일 취임 2주년을 앞두고 그동안 고수해온 국정 운영 기조에 상당한 변화를 줄 것이라 예상도 나온다.

단기적인 국정 쇄신은 인적 개편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일부 부처 장관까지 총선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에서는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의 모든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들도 전원 사의를 밝혔다. 이관섭 비서실장을 비롯해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다. 또 민심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대통령실 조직 개편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발전과 민생회복에 노력"

광주 국회의원 당선자 8명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4·10 총선 광주지역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들이 11일 유권자에게 감사함을 전하면서 지역 발전을 약속했다.

광주 동남갑 정진욱·동남을 안도걸·서구갑 조인철·서구를 양부남·북구갑 정준호·북구를 전진숙·광산갑 박균택·광산을 민형배 등 당선자 8명은 이날 첫 공식 일정으로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광주시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당선자들은 참배 후 "저희에게 모아주신 정권 심판과 민생 회복에 대한 염원, 광주의 더 큰 발전과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무지하고 무능한데 폭력적이기까지 한 정부가 우리 삶을 망쳐 놓았다"며 "선거 승리의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 해병대원 채상병 순직 사건, 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주가 조작 사건) 5대 실정을 확실하게 심판하

겠다"며 "그저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만 하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또 "민생 문제를 국회의 중심에 놓겠다"며 "광주의 민심을 모아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 인공지능,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에너지 등 첨단 미래 산업 육성 등으로 광주·전남을 책임질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며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광주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농어가 넘쳐나는 문화도시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총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IOPE
RETINOL EXPERT
RETINOL 0.1%

2weeks
고함양 고함도 레티놀이 분기당
필자 주름 용출 단 2주만에 개선
IOPE LAB

슈퍼레티놀 단 2주만에 주름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을,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IOPE

*인·40-50세 성인 여성(평균 나이 2019.08.16 ~ 10.17 10명)이 피부임상연구센터에서
고려사항일 080-023-5454 | www.iope.com